

학회소식

1. 정례학술발표회 개최

1) 제86회 정례학술발표회

일시 : 2008년 12월 19일(금) 오후 2시~5시

장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회의실 (17동 5층)

- 제1주제 唐律에서의 比例性의 原則
 발표자 : 김대홍(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 제2주제 唐律의 共犯理論
 발표자 : 서정민(포항지청 검사)

2) 제87회 정례학술발표회

일시 : 2009년 3월 28일(토) 오후 2시~6시

장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서암홀 (17동 6층)

- 제1주제 한국법사와 유대인
 발표자 : 최중고(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 제2주제 경국대전의 편찬과 梁誠之
 발표자 : 조지만(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제3주제 1895년 재판소구성법과 호시 토우루(星亨)
 발표자 : 문준영(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 제1회 韓國法史學會 瀛山 法史學 學術賞 施賞式



2008년 12월 19일(금) 오후 5시부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회의실에서 제 1회 韓國法史學會 瀛山 法史學 學術賞 施賞式을 거행하였다. 이 상은 朴秉濠 명예회장(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께서 후학들을 격려하고 학회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한 “韓國法史學會 瀛山 法史學 學術賞” 기금으로 운영 되는 것이다. 제1회 수상논문과 수상자, 선정이유 및 수상소감은 다음과 같다.

優 秀 賞: 「1517년 安東府 決訟立案 분석」, 『法史學研究』 제35호(2007. 4)

수 상 자: 鄭肯植(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선정이유: 이 논문은 현존하는 最古 판결문인 1517년 安東府 決訟立案을 치

밀하게 번역·분석한 연구이다. 먼저 對象의 면에서 절차법 관련 사료를 택함으로써, 관련 연구가 드문 분야를 다루어 연구의 공백을 축소하여 歷史相의 규명에 일조하였다. 둘째, 분석한 대상이 범실무의 사료이어서 법전 등의 분석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실상을 밝혀내는 데 기여하였다. 다음으로 方法論의 면에서 고문서학의 방법론과 법사학의 방법론을 통합적으로 구사하였다. 둘째, 이 두 용례에 대한 정리를 통하여 국어학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 연구는 무엇보다도 원사료를 철저히 翻譯해 냄으로써 학술연구의 엄밀한 기준을 충족하였고, 이와 같이 역사연구의 기본에 충실함으로써 후속연구의 기초를 놓았다는 점에서도 크게 평가할 수 있다.

수상소감: 우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 선생님, 특히 은사이시며 기금을 출연해주신 瀛山 朴秉濠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법사학을 법학적 방법보다는 역사적 방법으로 공부를 해왔습니다. 1년 동안 미국에서 쉬면서 그동안 제 공부를 반성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역사학계만이 아니라 법학계에도 기여해야 하고 또 제 자신의 공부만이 아니라 앞으로 후학들도 공부를 할 터전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은사이신 영산 선생님께서 기초적인 작업은 하셨지만, 후학들이 따라 하기에는 너무나 수준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사료를 해석하고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학술적 논문만이 아니라 주석과 함께 사료를 치밀하게 해석하고 추정할 경우 그 근거까지 제시하는 고증학적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는 ‘敎學相長’, 나아가 교육과 연구가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敎研相長’의 마음자세입니다. 이 논문은 그 동안 해온 작업의 일환입니다. 이 논문을 통하여 정확한 사료해석과 이에 터잡은 우수한 논문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학문의 길을 인도해주신 瀛山 朴秉濠 선생님, 법학적 방법론의 유용성을 깨우쳐 주신 崔鍾庫, 崔秉祚 선생님, 그리고 인자하신 형님과 같이 모든 허물을 덮어주신 徐敏 전 회장님과 鄭鍾休 회장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가까이서 이끌어주신 沈羲基 교수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고문서의 유용성

을 일깨워주시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故 李樹健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학들의 학문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앞으로 더욱 교육과 연구에 매진하여 이 상의 권위를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新 進 賞: 「《秋曹審理案》을 통해 본 19世紀 中葉 朝鮮의 刑事政策」, 『法史學研究』 제35호(2007. 4)

수 상 자: 田中俊光(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선정이유: 규장각에 소장된 《秋曹審理案》에 수록된 32건의 사형사건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19세기 중엽의 형사정책을 규명하였다. 정조대의 관형·흠출적 형정이 모범이 되어 聖王의 仁政을 표방한 것이 편찬의 배경이다. 이 자료를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등을 동원하여 자료에 나타나지 않은 이후의 결과까지 추적하였다. 실제로 사형이 집행된 예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죄수의 심리를 소홀히 한 결과가 아니라 仁政을 표방한 결과로 파악하였다.

이 논문은 산일된 자료를 발굴하여 학계에 소개하고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당대의 형사사법의 실체를 규명한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우리 학자들도 꺼려하는 韓國法制史를 외국인인 공부하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연구자 본인을 격려하면서, 또 우리 학자들을 자극하기 위해 선정하였다.

수상소감: 당초 지도교수이신 鄭肯植교수께서 《추조심리안》을 바탕으로 글을 쓰도록 지도를 받았을 때, 지금까지 아무도 손대지 않았던 자료를 자신이 다루는 것에 대하여 약간 불안감과 긴장감을 느끼면서 내용분석을 시작하였습니다.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 자료는 철종 즉위년(1849) 12월 28일부터 동왕 원년 2월 9일까지 형조에서 왕에게 死刑에 해당되는 32건의 중대사건에 대한 심리를 보고하여 裁可를 청한 내용과 그것에 대한 왕의 判付를 보고 날짜순으로 수록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32건의 사건은 傷害致死사건 이외에도 여자를 逼迫하여 자살하게 한 사건이나 御寶偽造사건, 邪學(천주교) 신양사건 등도 수록되어 있어 19세기 중엽의 犯罪相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 중에는

처벌의 근거로 《大明律附例》에 수록된 問刑條例가 원용되어 있는 사례가 있는 것을 알게 되며, 조선후기 형사사건의 法源에 대하여 검토할 계기가 되는 등, 본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조선후기 형사정책 등에 대하여 많은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 영산 법사학 신진학술상 수상소식을 들었을 때, 아직 병아리처럼 미흡한 점이 많은 저의 연구로 수상하는 것은 너무나 분수에 넘치는 것이 아닐까 두려웠으나 젊은 연구자를 각별히 응원하여 주신다는 영산 朴秉濠 교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니, 더욱 더 연구에 邁進할 큰 힘이 되었습니다.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